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Home Management Behavior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Employed Wives and Unemployed Wiv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李 貞 珂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Jeong Woo, Lee

호남대학교 가정관리과

강사: 黃 經 惠

Dept. of Home Management

Honam University

Lecturer : Kyung Hee, Hwang

동남보건전문대학

강사: 鄭 眞 姫

Dongnam Health

Junior College

Lecturer : Jin Hee, Gang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을 고찰하여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이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328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고 모든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 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가정생활만족도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는 의미있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 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지지도로 밝혀 졌으며, 이외에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선호도, 주생활 관리행동시 스트레스에 의하여,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선호도, 애정 및 기질 관리 행동시 스트레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속에서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부들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해야 하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하는 가정관리 행동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된다. 이때 주부들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하면서 부담감이나 정서적 긴장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긴장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주부들은 가정관리 행동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주부가 경험하는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는 이혼·죽음 등의 생활사건 등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가정관리 그 자체가 성격상 단조로우며 반복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결국 가정관리자인 주부는 가정관리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중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생활 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앞으로 더욱 더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취업주부의 스트레스가 비취업주부보다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스트레스인지수준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부들이 인지하는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는 주부들의 가정생활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주부의 취업'이라는 변인을 고려해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보면, 주부를 부각시켜 주부의 스트레스를 다른 논문은 많지

않았으며(장병옥, 1985; 권경희, 1985; 박난희, 1987; 이광주, 1988; 남유리, 1988; 김경아, 1990; 이안나 외, 1991; 두경자, 1993), 이들 논문에서 '주부의 취업 여부'는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채택되어 있을 뿐,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단 1편에 불과하고(남유리; 1988),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특히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와 가정관리행동의 결과인 가정생활 만족도를 연관시킨 연구는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가 인지하는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고, 2) 가사노동관련 변인과 남편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3)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을 고찰하여,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힐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관리행동의 질과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제한점

1)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므로,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2) 본 연구는 취업주부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주부 전반으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가정관리행동이란 가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함으로써 또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적인 활동이며, 가정을 관리하는 주부의 총체적인 행위이다.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이

루어지는 과정이므로 긴장감이 발생하고 특히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하는 과정 중에 부담감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관리행동 자체가 스트레스원으로써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주부에게 부담감이나 정서적 긴장을 줄 때 스트레스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란 주부가 가정관리행동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내지는 정서적 긴장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는 생활사건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가정을 관리하는 모든 주부들이 경험하는 누적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2.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첫째,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은 비취업주부에 비해 낮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은 비취업주부에 비해 높거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1) Gore와 Mangione의 '사회 역할이론', '성역할' 이론과, 2) '다중역할(multiple roles)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Gore와 Mangione(1983)의 사회역할이론(social-role theory)에 따르면 주부의 취업은 보수 또는 직업에서 얻는 자기존중이나 사회적 지지 등으로 인해 주부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은 비취업주부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Kessler & McRae, 1982; Gore & Mangione, 1983; 한혜경, 1985; 남유리, 1989)는 이 이론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성역할 이론(sex-role theory)에 따르면 취업이 남녀를 막론하고 똑같이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부가 취업에서 얻는 정신건강의 이득은 취업주부가 여전히 수행해야 하는 전통적인 주부 역할의 긴장과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상쇄되고 오히려 더 높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성역할 이론은 취업주부의 스트레스가 비취업주부에 비해서 높다는 결과

(Booth, 1977; 김경아, 1990)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스트레스는 '다중역할(multiple roles)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Goode(1960)에 의한 것으로 취업주부의 경우 아내역할, 어머니 역할, 직업인의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중,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이들 역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Sieber(1974), Thoits(1983)에 의하면 다중역할 수행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관련된 특권과 권리, 지위보장, 인성강화, 자아만족, 심리적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취업주부의 스트레스가 비취업주부보다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매일 수행하는 가정관리 행동을 스트레스원으로 해서 취업여부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주부를 대상으로하고 '주부의 취업여부'를 독립변인으로하여 분석한 연구(임정빈, 1988; 조미환, 1990; 두경자, 1993)와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백주현, 1990; 홍성희, 1991)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종숙, 1989; 김재경, 문숙재; 1992)만 있을뿐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주부의 취업여부와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이 매우 제한적임을 밝혀둔다.

주부의 취업여부와 가정생활만족도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임정빈, 1988; 이종숙, 1989; 조미환, 1990). 또한 이정우(1980)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같을 때 취업주부보다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 성취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관해 연구한 고보선의 연구(1991)에서도 비취업주부가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취업주부가 안고 있는 이중역할의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비취업주부의 경우를 보면, 한경미, 황덕순(1990)은 비취업주부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고, 백주현(1990)은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자본가, 관리직에 속할수록 주거 형태가 아파트 및 연립 주택에 거주할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4.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가사노동관련 변인

가사노동관련변인은 가사노동선후도, 가사수행능력,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로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가사노동이 생활의 질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을 결정하는 한 요소이고(Goebel & Hennion, 1984 ; 송혜림, 1988 재인용)주부의 취업여부에 무관하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이승미, 1989 ; 한경미, 1989)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만으로는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아실현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취업주부들의 증가와 취업주부들이 느끼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중부담과 같은 상황도 이 변인을 선정하는데 고려되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사노동선후도는 가사노동 각 영역에 대해 주부가 가지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 사용과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 다른 영역에까지 침투되며, 가사노동 등에 대한 감정이 생활만족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김외숙, 1981 ; 한경미, 1987 재인용).

가사수행능력은 주부가 가사노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주부 스스로 평가하여 그 능력을 파악한 것으로 이는 주부가 소유하는 인적자원으로써 가사를 처리하는데 효용성을 증대시켜 수행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한경미, 1987)를 가지기 때문에 주부들이 인지하는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되어진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주부가 가사노동을 생활유지, 인격의 형성 및 발달, 공동문화의 창조라는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한 것으로서 가사노동을 열등하고 가치가 적은일로 여기는 관념은 주부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부들도 가사노동을 통해 중요한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가치인식을 가진다면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생활만족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2) 남편 관련 변인

남편관련변인은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지지도,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 남편의 평균 퇴근시간으로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남편의 지지도가 클수록 역할갈등,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것이다.

남편의 가사 참여도에 따른 연구를 보면, 김정자(1990)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가사분담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줄수록 취업주부가 받는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낮다고 하였고, 반면에 최규련(199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취업주부자신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도에 따른 연구를 보면, 임정빈, 정혜정(1986)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은 남편의 지지가 있을때 감소된다고 하였고, 이연숙(1991) 등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는 남편의 지원 정도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평균근무시간은 주부의 역할 갈등(구혜령, 1990)과 부인의 결혼 만족도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조은숙, 1991)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Voydanoff, 1988)도 있어 연구 결과 간에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은 남편의 가사분담과 관련된 요인중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윤명희,

임정빈, 1985; 송혜림, 1987, 1957)이고, 남편이 가사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은 주부가 인지하는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과 평균 퇴근시간을 남편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취업주부/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가사노동관련변인(가사노동 선호도, 가사수행능력,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및 남편관련변인(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지지도,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 남편의 평균 퇴근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취업주부/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관련변인 및 남편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취업주부/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취업주부/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내용은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제시된다.

2. 척도의 구성

1) 가정관리 행동시 스트레스의 척도

酒井이 개발하여 이정우에 의해 수정, 보완된 가정관리능력 척도를 기초로 한 최덕경(1992)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는 「금전($\alpha=.66$), 의생활($\alpha=.73$), 식생활($\alpha=.70$), 주생활($\alpha=.71$), 애정 및 기질($\alpha=.76$), 능력($\alpha=.78$), 시간($\alpha=.73$)」 등 7개 하위영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가정생활만족도의 척도

가정생활만족도의 척도는 임정빈(1988), 조미환(1990), 최덕경(1992)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부부 생활만족도($\alpha=.86$), 여가생활만족도($\alpha=.93$), 부모생활만족도($\alpha=.81$), 경제생활만족도($\alpha=.75$), 가사노동만족도($\alpha=.76$) 등 5개 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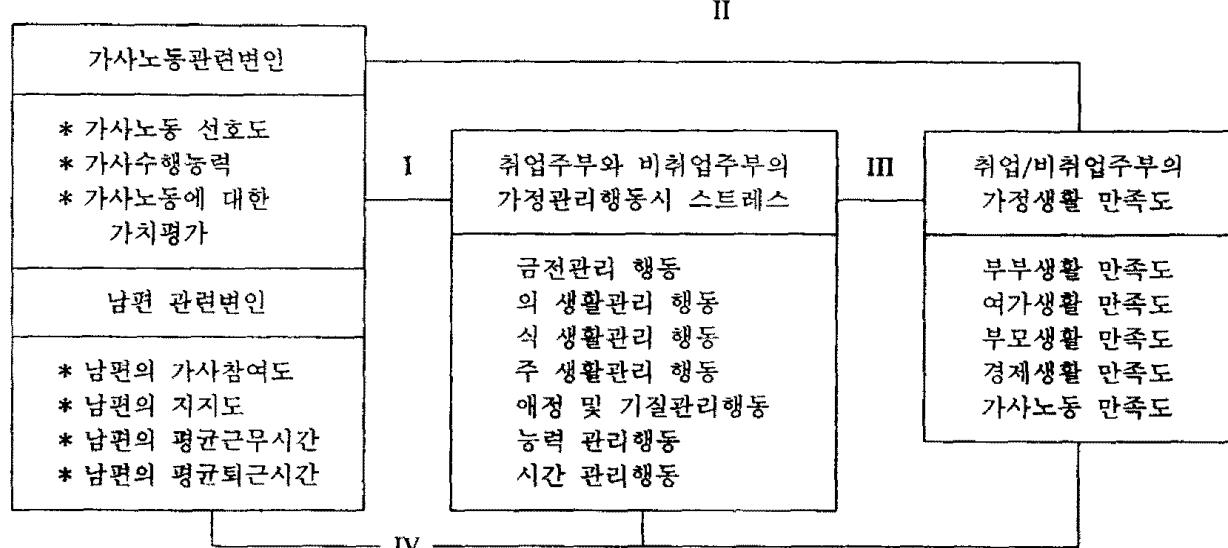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3) 가사노동 선호도, 가사수행능력,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척도

가사노동 선호도척도와 가사수행능력척도는 한경미(1987)의 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각각의 문항 및 신뢰도는 가사노동선호도(9문항, $\alpha=.79$), 가사수행능력(10문항, $\alpha=.83$)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척도는 선행연구(김성희, 1989; 문숙재, 1991)를 기초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3문항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4문항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로 높은 수준이었다.

4)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남편의 지지도 척도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조은숙(1991)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로 높은 수준이었다.

남편의 지지도 척도는 남편이 부인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으로 지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고(7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로 높은 수준이었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주부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면서 교사, 약사, 대학강사(교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취업주부로,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취업주부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제한한 이유는 1) 여성취업의 고학력화 경향과 전문직·사무직에 여성의 진출증가가 뚜렷해지는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에 취업주부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제한하였고, 2) 주부의 직업지위가 주부의 취업여부 자체보다 행동양식에 더 큰 차이를 나타낸다(이용학, 1985)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직, 비전문직, 비취업주부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는 전문직과 비취업주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직, 비전문직, 비취업주부의 비교는 후속연구를 통해 하고자 한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1993년 4월에 비취업주부 30여명과 취업주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고,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1993년 6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총 500부(취업주부 250부, 비취업주부 250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이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32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모든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2.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

1) 취업 여부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표 2)

취업여부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표 2),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는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p<.01$)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주부가 인지하는 가정관리 행동시 스트레스는 비취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취업에서 얻는 정신건강의 이득은 취업주부가 여전히 수행해야하는 전통적인 주부역할의 긴장과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상쇄되고 오히려 더 높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성역할이론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며, 여러 선행연구(Booth, 1977; 김경아, 1990)와 일치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표 3, 4)

(1) 가사노동관련변인

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가사노동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외한 가사노동선호도($p<.001$), 가사수행능력($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사노동 선호도가 낮은 집단일 때, 가사수행능력이 낮아질수록 비취업주부가 인지하는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는 높아졌고,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 변인 | 집단 |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빈도(%) | 비취업주부 빈도(%) |
|-------------|-------------|------------------------|----------------|
| 연령 | 20대 | 25(18.5) | 5(7.6) |
| | 30대 | 88(65.2) | 103(53.4) |
| | 40대 이상 | 22(16.3) | 85(44.0) |
| | 계 | 135(100.0) | 193(100.0) |
| 부인의 학력 | 중졸 이하 | 0(0.0) | 31(16.1) |
| | 고졸, 전문대졸 | 9(6.7) | 113(58.5) |
| | 대학졸 이상 | 126(93.3) | 49(25.4) |
| | 계 | 135(100.0) | 193(100.0) |
| 남편의 학력 | 고졸 이하 | 0(0.0) | 74(38.3) |
| | 대학졸 | 102(75.6) | 105(54.4) |
| | 대학원졸 이상 | 33(24.4) | 14(7.3) |
| | 계 | 135(100.0) | 193(100.0) |
| 자녀수 | 1명 | 66(48.9) | 21(10.9) |
| | 2명 | 63(46.7) | 115(59.6) |
| | 3명이상 | 6(4.4) | 57(29.5) |
| | 계 | 135(100.0) | 193(100.0) |
| 남편의 직업 |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 0(0.0) | 22(11.4) |
| | 판매직 | 16(11.9) | 36(18.7) |
| | 사무직 | 55(40.7) | 70(36.3) |
| | 관리직 | 25(18.5) | 41(21.2) |
| | 전문기술직 | 38(28.1) | 24(12.4) |
| | 계 | 135(100.0) | 193(100.0) |
| 결혼 지속 년수 | 5년이하 | 49(36.3) | 4(2.1) |
| | 6~10년 | 44(32.6) | 7(8.8) |
| | 11~15년 | 24(17.8) | 88(45.6) |
| | 16년 이상 | 18(13.3) | 84(43.5) |
| | 계 | 135(100.0) | 193(100.0) |
| 월평균 가계 소득 | 150만원 이하 | 20(14.2) | 94(48.7) |
| | 151~200만원 | 49(36.5) | 63(32.6) |
| | 201~300만원 | 42(31.4) | 23(12.0) |
| | 300만원 이상 | 24(17.9) | 13(6.7) |
| | 계 | 135(100.0) | 193(100.0) |
|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미만 | 12(8.9) | 21(10.9) |
| | 8시간 | 38(28.1) | 40(20.8) |
| | 8시간 초과~10시간 | 60(44.4) | 88(45.8) |
| | 10시간 초과 | 25(18.5) | 44(22.5) |
| | 계 | 135(100.0) | 193(100.0) |
| 남편의 평균 퇴근시간 | 7시 이전 | 20(14.8) | 18(9.4) |
| | 7~8시 사이 | 30(22.2) | 49(25.5) |
| | 8~9시 사이 | 40(29.6) | 53(27.6) |
| | 9~10시 사이 | 27(20.0) | 37(18.8) |
| | 10시 이후 | 18(13.3) | 36(18.7) |
| | 계 | 135(100.0) | 193(100.0) |

이는 가사노동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보다 더 효율적이고 질높은 관리행동을 하고 있다는 두경자(1993; 228)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2) 남편 관련변인

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남편관련변인중에서 남편의 지지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편의 지지도를 제외한 다른 3개변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역할 갈등 및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들(Greenhaus & Beutell, 1985; 임정빈, 정혜정, 1986; 구혜령, 1990)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3개 변인을 제외한 남편의 지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의 지지도가 낮아질수록 비취업주부가 인지하는 가정관리 행동시 스트레스는 높아졌고, 이는 선행연구들(임정빈, 정혜정, 1986; 구혜령, 1990)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3.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

1) 취업 여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표 5)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전체적인 가정생활만족도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영역 별로는 부부생활 만족도($p<.05$), 경제생활 만족도($p<.001$), 가사노동만족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부에 따라 결혼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는 Nye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취업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의 이중역할 부담으로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다는 여러 선행연구(임정빈, 1988; 이종숙, 1989; 조미환, 1990; 고보선, 1991)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이는 취업주부들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표 6, 7)

(1) 가사노동 관련 변인

표 2.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인지수준

|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 | 취업주부 평균(표준편차) | 비취업주부 평균(표준편차) | t |
|--------------|-------------|------------------|-------------------|---------|
| 하위영역 | 금전관리행동 | 3.03(0.72) | 2.90(0.71) | 1.61 |
| | 의생활관리행동 | 2.83(0.93) | 2.40(0.89) | 4.18*** |
| | 식생활관리행동 | 3.13(0.69) | 2.83(0.78) | 3.74*** |
| | 애정 및 기질관리행동 | 2.44(0.91) | 2.35(1.09) | 0.77 |
| | 능력관리행동 | 3.05(0.78) | 2.89(0.84) | 1.79 |
| | 시간관리행동 | 2.72(0.82) | 2.47(0.83) | 2.79** |
| | 주생활관리행동 | 2.75(0.85) | 2.57(0.98) | 1.77 |
| | 전체 | 2.92(0.57) | 2.69(0.63) | 3.32** |

*p<.01 ***p<.001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 변인 | 구분 | 금전 관리행동 | | 의생활 관리행동 | | 식생활 관리행동 | | 주생활 관리행동 | | 애정 및 기질 관리행동 | | 능력 관리행동 | | 시간 관리행동 | | 전체 | |
|----------------------|--------|------------|----|-------------|-----|-------------|----|-------------|----|-----------------|----|------------|----|------------|----|--------|----|
| |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 가사노동 선후도 | 낮은 수준 | 3.06 | | 3.01 | | 3.34 | | 2.30 | | 3.19 | | 2.94 | | 2.96 | | 3.05 | |
| | 중간 수준 | 3.05 | | 2.84 | | 3.09 | | 2.50 | | 3.00 | | 2.65 | | 2.68 | | 2.89 | |
| | 높은 수준 | 2.87 | | 2.44 | | 3.04 | | 2.30 | | 3.07 | | 2.78 | | 2.82 | | 2.84 | |
| | F | 0.43 | | 1.84 | | 1.54 | | 0.71 | | 0.61 | | 1.28 | | 1.23 | | 1.01 | |
| 가사수행 능력 | 낮은 수준 | 2.89 | | 2.91 | | 3.13 | | 2.37 | | 3.08 | | 2.73 | | 2.84 | | 2.91 | |
| | 중간 수준 | 3.09 | | 2.83 | | 3.12 | | 2.48 | | 3.02 | | 2.72 | | 2.70 | | 2.91 | |
| | 높은 수준 | 2.98 | | 2.54 | | 3.30 | | 2.25 | | 3.21 | | 2.75 | | 2.96 | | 2.95 | |
| | F | 0.96 | | 0.53 | | 0.24 | | 0.35 | | 0.24 | | 0.01 | | 0.58 | | 0.17 | |
| 가사노동 에 대한 가치평가 | 낮은 수준 | 3.06 | | 2.84 | | 3.19 | | 2.48 | | 3.19 | | 3.03 | | 2.78 | | 3.01 | |
| | 중간 수준 | 3.03 | | 2.86 | | 3.09 | | 2.36 | | 3.01 | | 2.63 | | 2.77 | | 2.89 | |
| | 높은 수준 | 2.99 | | 2.70 | | 3.24 | | 2.79 | | 3.03 | | 2.74 | | 2.63 | | 2.92 | |
| | F | 0.05 | | 0.22 | | 0.47 | | 1.40 | | 0.57 | | 2.50 | | 0.21 | | 0.52 | |
| 남편의 가사 참여도 | 낮은 수준 | 3.21 | | 3.00 | | 2.81 | | 2.43 | | 3.04 | | 2.92 | | 3.09 | | 2.97 | |
| | 중간 수준 | 2.99 | | 2.77 | | 3.19 | | 2.37 | | 3.08 | | 2.67 | | 2.71 | | 2.90 | |
| | 높은 수준 | 3.03 | | 2.92 | | 3.15 | | 2.61 | | 2.96 | | 2.78 | | 2.71 | | 2.92 | |
| | F | 0.57 | | 0.58 | | 1.89 | | 0.78 | | 0.26 | | 0.68 | | 1.33 | | 0.09 | |
| 남편의 지지도 | 낮은 수준 | 3.58 | A | 3.90 | A | 3.56 | | 2.70 | | 3.50 | | 3.20 | | 3.43 | A | 3.46 | A |
| | 중간 수준 | 2.98 | B | 2.79 | B | 3.14 | | 2.39 | | 3.04 | | 2.70 | | 2.73 | B | 2.89 | B |
| | 높은 수준 | 3.00 | B | 2.56 | B | 2.95 | | 2.52 | | 2.90 | | 2.63 | | 2.54 | B | 2.79 | B |
| | F | 3.26** | | 8.66*** | | 2.82 | | 0.65 | | 2.16 | | 1.92 | | 4.12* | | 5.73** | |
|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 | 8시간미만 | 3.18 | | 3.08 | | 3.60 | | 2.87 | | 3.44 | | 2.98 | | 3.11 | | 3.24 | |
| | 8시간 | 3.10 | | 2.80 | | 3.19 | | 2.47 | | 3.04 | | 2.71 | | 2.83 | | 2.94 | |
| | 8~10시간 | 3.00 | | 2.75 | | 3.03 | | 2.32 | | 2.90 | | 2.58 | | 2.62 | | 2.81 | |
| | 10시간초과 | 2.92 | | 2.96 | | 3.07 | | 2.46 | | 3.23 | | 2.98 | | 2.77 | | 2.98 | |
| | F | 0.52 | | 0.62 | | 2.51 | | 1.31 | | 2.31 | | 1.89 | | 1.34 | | 2.28 | |
| 남편의 평균 퇴근시간 | 7시 이전 | 2.84 | | 2.68 | ABC | 3.03 | | 2.18 | | 3.03 | | 2.50 | B | 2.60 | | 2.78 | |
| | 7~8시 | 3.13 | | 2.59 | C | 3.16 | | 2.40 | | 2.92 | | 2.40 | B | 2.77 | | 2.84 | |
| | 8~9시 | 3.03 | | 2.70 | BC | 3.16 | | 2.53 | | 3.03 | | 2.71 | B | 2.64 | | 2.89 | |
| | 9~10시 | 3.07 | | 3.12 | A | 3.00 | | 2.37 | | 2.97 | | 2.82 | B | 2.65 | | 2.91 | |
| | 10시 이후 | 3.03 | | 3.26 | A | 3.36 | | 2.69 | | 3.45 | | 3.39 | A | 3.28 | | 3.26 | |
| | F | 0.49 | | 2.58* | | 0.85 | | 0.92 | | 1.55 | | 5.16*** | | 2.20 | | 1.40 | |

*p<.05 **p<.01 ***p<.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 변 인 | 구 分 | 금전 관리행동 | | 의생활 관리행동 | | 식생활 관리행동 | | 주생활 관리행동 | | 애정 및 기질 관리행동 | | 능력 관리행동 | | 시간 관리행동 | | 전 체 | |
|----------------------|--------|---------|----|----------|----|----------|----|----------|----|--------------|----|---------|----|---------|----|----------|----|
| |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평균 | D. |
| 가사노동 선호도 | 낮은 수준 | 3.21 | A | 2.77 | A | 3.16 | A | 2.50 | AB | 3.14 | A | 2.73 | | 2.94 | | 2.99 | A |
| | 중간 수준 | 2.91 | AB | 2.42 | AB | 2.85 | AB | 2.40 | A | 2.92 | AB | 2.48 | | 2.57 | | 2.72 | AB |
| | 높은 수준 | 2.62 | B | 2.08 | B | 2.48 | C | 1.94 | B | 2.50 | C | 2.24 | | 2.35 | | 2.38 | C |
| | F | 3.58* | | 3.12* | | 4.12* | | 2.15* | | 3.61* | | 1.81 | | 1.79 | | 5.23** | |
| 가사수행 능력 | 낮은 수준 | 3.14 | A | 2.77 | A | 2.96 | A | 2.98 | A | 3.38 | A | 3.12 | A | 3.22 | A | 3.11 | A |
| | 중간 수준 | 2.94 | AB | 2.45 | AB | 2.92 | AB | 2.31 | BC | 2.37 | BC | 2.40 | BC | 2.51 | BC | 2.70 | B |
| | 높은 수준 | 2.66 | C | 2.07 | C | 2.47 | C | 2.20 | C | 2.96 | C | 2.36 | C | 2.46 | C | 2.47 | C |
| | F | 3.85* | | 4.90** | | 5.63** | | 3.95* | | 4.96* | | 7.65** | | 5.11** | | 7.46*** | |
| 가사노동 에 대한 가치평가 | 낮은 수준 | 2.82 | | 2.29 | | 2.92 | | 2.47 | | 2.73 | AB | 2.64 | | 2.61 | | 2.69 | |
| | 중간 수준 | 2.95 | | 2.48 | | 2.87 | | 2.44 | | 3.02 | A | 2.48 | | 2.64 | | 2.76 | |
| | 높은 수준 | 2.81 | | 2.27 | | 2.64 | | 2.03 | | 2.63 | B | 2.31 | | 2.35 | | 2.51 | |
| | F | 0.91 | | 1.19 | | 1.69 | | 2.41 | | 4.14* | | 1.42 | | 1.43 | | 2.69 | |
| 남편의 가사 참여도 | 낮은 수준 | 3.03 | | 2.38 | | 2.91 | | 2.50 | | 2.91 | | 2.56 | | 2.74 | | 2.78 | |
| | 중간 수준 | 2.86 | | 2.39 | | 2.80 | | 2.31 | | 2.88 | | 2.45 | | 2.53 | | 2.67 | |
| | 높은 수준 | 2.90 | | 2.50 | | 2.82 | | 2.39 | | 2.87 | | 2.40 | | 2.46 | | 2.68 | |
| | F | 0.85 | | 0.12 | | 0.29 | | 0.50 | | 0.03 | | 0.36 | | 0.81 | | 0.45 | |
| 남편의 지지도 | 낮은 수준 | 3.23 | A | 2.57 | | 3.26 | A | 2.70 | A | 3.20 | A | 2.87 | A | 3.10 | A | 3.06 | A |
| | 중간 수준 | 2.86 | BC | 2.41 | | 2.81 | B | 2.32 | AB | 2.86 | BC | 2.42 | BC | 2.51 | BC | 2.66 | B |
| | 높은 수준 | 2.65 | B | 2.15 | | 2.36 | C | 2.03 | B | 2.60 | C | 2.16 | C | 2.17 | C | 2.37 | C |
| | F | 6.21** | | 1.75 | | 11.95*** | | 3.24* | | 4.48* | | 7.05** | | 8.71*** | | 11.10*** | |
|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 | 8시간미만 | 2.86 | | 2.35 | | 2.82 | | 2.26 | | 2.91 | | 2.31 | | 2.51 | | 2.65 | |
| | 8시간 | 2.91 | | 2.54 | | 2.97 | | 2.49 | | 2.91 | | 2.68 | | 2.73 | | 2.80 | |
| | 8~10시간 | 2.90 | | 2.41 | | 2.85 | | 2.34 | | 2.87 | | 2.45 | | 2.63 | | 2.70 | |
| | 10시간초과 | 2.90 | | 2.20 | | 2.63 | | 2.27 | | 2.82 | | 2.33 | | 2.29 | | 2.58 | |
| | F | 0.28 | | 0.59 | | 1.37 | | 0.34 | | 0.96 | | 1.56 | | 1.64 | | 0.89 | |
| 남편의 평균 퇴근시간 | 7시 이전 | 2.83 | | 2.33 | | 2.82 | | 2.19 | | 2.91 | | 2.63 | | 2.78 | | 2.71 | |
| | 7~8시 | 2.95 | | 2.48 | | 2.91 | | 2.26 | | 2.85 | | 2.43 | | 2.71 | | 2.72 | |
| | 8~9시 | 2.91 | | 2.32 | | 2.68 | | 2.41 | | 2.66 | | 2.31 | | 2.42 | | 2.58 | |
| | 9~10시 | 2.82 | | 2.54 | | 2.92 | | 2.50 | | 3.00 | | 2.49 | | 2.49 | | 2.74 | |
| | 10시 이후 | 2.97 | | 2.35 | | 2.85 | | 2.34 | | 3.14 | | 2.63 | | 2.59 | | 2.79 | |
| | F | 0.31 | | 0.47 | | 0.72 | | 0.38 | | 2.02 | | 0.97 | | 0.81 | | 0.72 | |

*p<.05 **p<.01 ***p<.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5.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 가정 생활만족도 | | 취업주부 평균(표준편차) | 비취업주부 평균(표준편차) | t |
|------------------|---------|------------------|-------------------|----------|
| 하 위 영 역 | 부부생활만족도 | 3.86(0.68) | 3.66(0.85) | 2.27* |
| | 여가생활만족도 | 2.95(0.99) | 3.02(1.04) | -0.65 |
| | 부모생활만족도 | 3.63(0.66) | 3.59(0.69) | 0.47 |
| | 경제생활만족도 | 3.60(0.65) | 3.26(0.78) | 4.20*** |
| | 가사노동만족도 | 2.56(0.78) | 2.95(0.79) | -4.47*** |
| 전 체 | | 3.37(0.44) | 3.33(0.60) | 0.71 |

*p<.05 ***p<.001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주부의 가정 생활만족도

| 변인 | 구분 | 부부생활 만족도 | | 여가생활 만족도 | | 부모생활 만족도 | | 경제생활 만족도 | | 가사노동 만족도 | | 전체 |
|---------------------|------------|-------------|----|-------------|----|-------------|----|-------------|----|-------------|----|----------|
| | | 평균 | D. | |
| 가사노동 선호도 | 낮은 수준 | 3.55 | B | 2.91 | | 3.52 | B | 3.30 | B | 2.00 | C | 3.13 C |
| | 중간 수준 | 3.88 | A | 2.88 | | 3.59 | B | 3.63 | A | 2.58 | B | 3.36 B |
| | 높은 수준 | 4.23 | A | 3.48 | | 4.08 | A | 3.95 | A | 3.44 | A | 3.87 A |
| | F | 5.51** | | 2.48 | | 4.21* | | 5.48* | | 21.9*** | | 17.37*** |
| 가사수행 능력 | 낮은 수준 | 3.70 | | 2.53 | B | 3.61 | | 3.56 | | 2.32 | | 3.21 B |
| | 중간 수준 | 3.91 | | 3.07 | A | 3.62 | | 3.58 | | 2.62 | | 3.41 A |
| | 높은 수준 | 3.88 | | 3.50 | A | 3.95 | | 3.38 | | 2.88 | | 3.67 A |
| | F | 1.25 | | 5.39** | | 0.97 | | 0.78 | | 2.63 | | 4.94** |
|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 낮은 수준 | 3.62 | | 2.91 | | 3.41 | | 3.45 | | 2.36 | | 3.20 B |
| | 중간 수준 | 3.89 | | 3.02 | | 3.67 | | 3.68 | | 2.66 | | 3.43 A |
| | 높은 수준 | 4.04 | | 2.71 | | 3.75 | | 3.42 | | 2.39 | | 3.33 AB |
| | F | 2.45 | | 0.80 | | 1.96 | | 2.03 | | 2.14 | | 3.10* |
| 남편의 가사 참여도 | 낮은 수준 | 3.68 | | 3.30 | | 3.59 | | 3.62 | | 2.36 | | 3.32 |
| | 중간 수준 | 3.82 | | 2.92 | | 3.56 | | 3.61 | | 2.57 | | 3.35 |
| | 높은 수준 | 4.02 | | 3.01 | | 3.84 | | 3.56 | | 2.64 | | 3.47 |
| | F | 1.59 | | 0.15 | | 2.26 | | 0.06 | | 0.68 | | 1.20 |
| 남편의 지도도 | 낮은 수준 | 2.75 | C | 2.90 | | 3.14 | B | 3.15 | | 2.20 | | 2.88 C |
| | 중간 수준 | 3.81 | B | 2.91 | | 3.62 | A | 3.63 | | 2.53 | | 3.36 B |
| | 높은 수준 | 4.50 | A | 3.18 | | 3.86 | A | 3.63 | | 2.83 | | 3.65 A |
| | F | 37.0 | | 0.74 | | 4.66* | | 2.58 | | 2.68 | | 13.79*** |
|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미만 | 3.77 | | 3.38 | | 3.87 | | 3.65 | | 2.72 | | 3.53 |
| | 8시간 | 3.83 | | 3.11 | | 3.55 | | 3.66 | | 2.58 | | 3.39 |
| | 8시간초과~10시간 | 3.89 | | 3.86 | | 3.63 | | 3.53 | | 2.56 | | 3.35 |
| | 10시간 초과 | 3.86 | | 2.75 | | 3.64 | | 3.63 | | 2.47 | | 3.33 |
| | F | 0.12 | | 1.58 | | 0.69 | | 0.34 | | 0.29 | | 0.72 |
| 남편의 평균 퇴근시간 | 7시 이전 | 3.93 | AC | 2.99 | | 3.63 | | 3.70 | | 2.45 | | 3.39 |
| | 7~8시 사이 | 3.98 | AC | 3.11 | | 3.67 | | 3.60 | | 2.68 | | 3.46 |
| | 8~9시 사이 | 4.04 | A | 2.98 | | 3.59 | | 3.68 | | 2.64 | | 3.43 |
| | 9~10시 사이 | 3.66 | BC | 2.80 | | 3.69 | | 3.43 | | 2.49 | | 3.27 |
| | 10시 이후 | 3.44 | C | 2.83 | | 3.59 | | 3.56 | | 2.41 | | 3.23 |
| | F | 3.53** | | 0.15 | | 0.15 | | 0.74 | | 0.60 | | 1.38 |

*p<.05 **p<.01 ***p<.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모든 가사노동 관련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사노동선호도가 높아질수록, 가사수행능력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일 때,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간으로 인식할 때,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도 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사노동 관련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이란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관 없이 여전히 주부의 일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사료되어진다.

(2) 남편 관련 변인

남편의 가사참여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의 차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

| 변인 | 구분 | 부부생활 만족도 | | 여가생활 만족도 | | 부모생활 만족도 | | 경제생활 만족도 | | 가사노동 만족도 | | 전체 | |
|---------------------|------------|-------------|----|-------------|----|-------------|----|-------------|----|-------------|----|----------|----|
| | | 평균 | D. | 평균 | D. |
| 가사노동 선호도 | 낮은 수준 | 3.36 | C | 2.64 | B | 3.31 | C | 2.98 | C | 2.98 | C | 2.97 | C |
| | 중간 수준 | 3.61 | BC | 3.00 | AB | 3.54 | BC | 3.23 | BC | 3.23 | BC | 3.29 | B |
| | 높은 수준 | 4.16 | A | 3.41 | A | 4.12 | A | 3.62 | A | 3.62 | A | 3.83 | A |
| | F | 5.38** | | 2.84* | | 9.81* | | 3.87° | | 3.87* | | 13.48*** | |
| 가사수행 능력 | 낮은 수준 | 3.18 | C | 2.49 | C | 3.09 | C | 2.89 | | 2.43 | C | 2.85 | C |
| | 중간 수준 | 3.67 | AB | 3.03 | AB | 3.61 | AB | 3.28 | | 2.91 | B | 3.33 | B |
| | 높은 수준 | 3.87 | A | 2.92 | A | 3.80 | A | 3.38 | | 3.36 | A | 3.56 | A |
| | F | 4.71* | | 4.09* | | 7.74*** | | 2.88 | | 10.94*** | | 10.53*** | |
|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 낮은 수준 | 3.28 | BC | 2.59 | C | 3.32 | C | 2.95 | C | 2.52 | C | 2.97 | C |
| | 중간 수준 | 3.58 | B | 3.01 | B | 3.62 | AB | 3.28 | AB | 2.98 | B | 3.32 | B |
| | 높은 수준 | 4.17 | A | 3.38 | A | 3.74 | A | 3.43 | A | 3.33 | A | 3.63 | A |
| | F | 12.90*** | | 5.36** | | 3.62* | | 3.61* | | 10.74*** | | 12.29*** | |
| 남편의 가사 참여도 | 낮은 수준 | 3.26 | C | 2.57 | B | 3.46 | | 3.12 | | 2.73 | | 3.06 | B |
| | 중간 수준 | 3.75 | AB | 3.14 | A | 3.64 | | 3.31 | | 3.02 | | 3.40 | A |
| | 높은 수준 | 3.85 | A | 3.14 | A | 3.54 | | 3.26 | | 2.96 | | 3.38 | A |
| | F | 5.79** | | 4.82** | | 1.10 | | 0.90 | | 2.07 | | 5.13** | |
| 남편의 지지도 | 낮은 수준 | 2.78 | C | 2.37 | C | 3.14 | C | 2.80 | C | 2.48 | C | 2.75 | C |
| | 중간 수준 | 3.72 | B | 3.13 | AB | 3.64 | B | 3.31 | B | 2.95 | B | 3.38 | B |
| | 높은 수준 | 4.57 | A | 3.44 | A | 3.99 | A | 3.68 | A | 3.58 | A | 3.87 | A |
| | F | 57.89*** | | 10.99*** | | 14.54*** | | 12.06*** | | 18.40*** | | 42.09*** | |
|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미만 | 3.62 | | 2.92 | | 3.90 | | 3.49 | | 3.17 | | 3.46 | |
| | 8시간 | 3.69 | | 2.99 | | 3.60 | | 3.11 | | 2.83 | | 3.28 | |
| | 8시간초과~10시간 | 3.74 | | 3.09 | | 3.58 | | 3.25 | | 2.98 | | 3.36 | |
| | 10시간 초과 | 3.49 | | 2.96 | | 3.48 | | 3.31 | | 2.91 | | 3.26 | |
| | F | 0.82 | | 0.26 | | 1.83 | | 1.14 | | 0.99 | | 0.67 | |
| 남편의 평균 퇴근시간 | 7시 이전 | 4.06 | A | 3.04 | | 3.48 | | 3.46 | | 3.04 | | 3.44 | |
| | 7~8시 사이 | 3.71 | A | 2.98 | | 3.52 | | 3.19 | | 3.03 | | 3.31 | |
| | 8~9시 사이 | 3.79 | A | 3.09 | | 3.71 | | 3.28 | | 3.08 | | 3.42 | |
| | 9~10시 사이 | 3.57 | AB | 2.89 | | 3.51 | | 3.15 | | 2.74 | | 3.21 | |
| | 10시 이후 | 3.32 | B | 3.12 | | 3.65 | | 3.31 | | 2.82 | | 3.29 | |
| | F | 3.00* | | 0.31 | | 0.79 | | 0.60 | | 1.44 | | 0.87 | |

*p<.05 **p<.01 ***p<.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취업주부 자신의 결혼 만족도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최규련(199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결국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남편의 자지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의 자지도가 높아질수록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결국 남편의 자지도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표 8. 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가정생활만족도와 각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 | 금전 관리행동 | 의생활 관리행동 | 식생활 관리행동 | 주생활 관리행동 | 애정 및 기질 관리행동 | 능력 관리행동 | 시간 관리행동 | 가정관리행동 스트레스 |
|---------|---------|----------|----------|----------|--------------|---------|---------|-------------|
| 부부생활만족도 | -.28*** | -.28** | -.26*** | -.19* | -.18* | -.21* | -.24*** | -.33*** |
| 여가생활만족도 | .01 | -.06 | .07 | .06 | .05 | -.06 | -.00 | .01 |
| 부모생활만족도 | -.03 | -.21* | -.12 | -.16 | -.20* | -.20* | -.21** | -.22** |
| 경제생활만족도 | -.33*** | -.08 | -.10 | -.20* | -.19* | -.23* | -.16 | -.27*** |
| 가사노동만족도 | -.11 | -.19* | -.18* | -.16 | -.19* | -.09 | -.12 | -.21* |
| 전체생활만족도 | -.22** | -.27*** | -.17* | -.19* | -.21** | -.27** | -.24** | -.32*** |

표 9.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가정생활만족도와 각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 | 금전 관리행동 | 의생활 관리행동 | 식생활 관리행동 | 주생활 관리행동 | 애정 및 기질 관리행동 | 능력 관리행동 | 시간 관리행동 | 가정관리행동 스트레스 |
|---------|---------|----------|----------|----------|--------------|---------|---------|-------------|
| 부부생활만족도 | -.24*** | -.18** | -.29*** | -.24*** | -.31*** | -.23*** | -.27*** | -.35*** |
| 여가생활만족도 | -.16*** | -.24*** | -.22** | -.18** | -.19** | -.15* | -.23*** | -.26*** |
| 부모생활만족도 | -.27*** | -.11 | -.33*** | -.23** | -.36*** | -.33*** | -.39*** | -.40*** |
| 경제생활만족도 | -.30*** | -.24*** | -.27*** | -.28*** | -.20** | -.16* | -.19** | -.31*** |
| 가사노동만족도 | -.23*** | -.12 | -.30*** | -.20** | -.28*** | -.16* | -.20** | -.30*** |
| 전체생활만족도 | -.33*** | -.25*** | -.39*** | -.31*** | -.37*** | -.29*** | -.36*** | -.45*** |

*p<.05 **p<.01 ***p<.001

그외 남편의 평균 근무시간, 남편의 평균 퇴근 시간변인은 취업/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가정생활만족도는 취업주부($\gamma = -.32$), 비취업주부($\gamma = -.45$)로 매우 의미있게 부적상관을 보여서, 주부가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관리 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주부들의 가정생활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됨이 밝혀졌다.

취업주부($\gamma = -.32$)보다 비취업주부($\gamma = -.45$)가 더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목 할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가정생활만족도에 매우 뚜렷하게 ($p < .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애정 및 기질, 식생활, 금전, 시간관리행동시 성공적인 관리행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인다면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5.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독립변인의 영향력

취업/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0, 11에 나타나있다.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지지도($\beta = .39$)이며, 다음이 가사노동 선호도($\beta = .38$), 주생활관리행동($\beta = -.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변인에 의해

표 10.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
| | B | β | R ² |
| 남편의 지지도 | .25 | .39*** | .30 |
| 가사노동 선호도 | .32 | .38*** | .42 |
| 주생활 관리행동 | -.09 | -.19** | .46 |
| 회귀상수 | 1.66 | | |
| R ² | .46 | | |

표 11.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독립변인 | 종속변인: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 | | |
|---------------|--------------------------|---------|-------|
| | B | β | R^2 |
| 남편의 지지도 | .34 | .48*** | .42 |
| 가사노동 선호도 | .29 | .23*** | .49 |
| 애정 및 기질관리행동 | -.13 | -.19*** | .52 |
|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 .13 | .13* | .54 |
| 회귀상수 | .99 | | |
| R^2 | .54 | | |

*p<.05 **p<.01 ***p<.001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46% 정도가 설명된다. 즉,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생활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지지도($\beta=.48$)로 드러났으며, 다음이 가사노동선호도($\beta=.23$), 애정 및 기질관리행동($\beta=-.19$),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beta=.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 선호도가 높을수록, 애정 및 기질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들 4개 변인에 의하여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54% 정도가 설명된다.

이상의 분석결과 주목할 만한 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남편의 지지도, 가사노동선호도 등은 공통적인 것이며,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두집단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일한 변인은 주생활관리행동시 스트레스(취업주부)와 애정 및 기질관리행동시 스트레스(비취업주부)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제약 등으로 인해 계절마다 집안을 꾸민다거나, 집수리 등의 주생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비취업주부는 가정에만 있다는 생각으로 늘 자신감이 부족하고, 급속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가족원의 가치, 목표·자원 등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남편의 지지도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드러난것도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남편의 지지도를 더 높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권위의식이 불식되어야 하고, 부부는 양성이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누적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원이 되는 가정관리행동시 주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와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생활만족도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취업주부가 인지한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는 비취업주부 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 2) 남편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높아졌으며, 가사노동선호도와 가사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높아졌다.
- 3) 가정생활 만족도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가사노동선호도가 높을수록, 가사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아졌고,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아졌다.
- 5)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인지수준과 가정생활 만족도는 의미있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 6)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지지도로

밝혀졌으며, 이외에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선호도, 주생활관리행동시 스트레스에 의하여,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선호도, 애정 및 기질관리행동시 스트레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편의 지지도가 취업, 비취업을 막론하고 모든 주부들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힐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대 가정생활이 부부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부부중심의 생활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남편의 지지도를 더 높히기 위해서는 TV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성차별적인 의식을 불식시키고 역할의 공유 및 양성 평등에 관한 프로그램 및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사노동 선호도도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부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은 여전히 주부의 일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사료 되며,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을 가족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고 가사노동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을 집안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정서적인 충족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하여 자기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전환한다면, 그들의 가정생활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지지도를 높히고 주부들이 가사노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주생활관리행동과 애정 및 기질관리행동시 스트레스를 낮춘다면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되며, 남편관련 변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도, 가족원의 가사참여도를 고려한 가족관련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며, 취업주부의 대상을 전문직뿐만 아니라 비전문직 대상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폭넓게 다루어 보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고보선(1981).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만족—도시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 2) 구혜령(1990).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 3)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김성희(1989).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평가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5) 김정자(1990). 주부가 지각한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전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도미향·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용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8) 두경자(1990). 가정관리 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9) _____(1993).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대처행동에 따른 가정관리행동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 10)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11) 백주현(1990). 여가선택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3) 이승미(1991). 주부가 지각한 시간 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주부 비교를 중심으로.
- 14) 이연숙·이순형·유가호·조재순(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15) 이용학(1985).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정우(1980).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연구. 숙대 박사학위 논문.
- 17) _____(1981). “가정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연구, 서울; 수학사.
- 18)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

- 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 생활만족. 이대 박사학위 논문.
- 20) _____ ·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21) 조미환(199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
- 22) 조은숙(1991). 남편의 직무관련 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간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3)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1(1).
- 24) 최덕경(1992). 가정관리행동시 주부의 스트레스 와 관련변인 연구. 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5)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6) _____ ·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 (1).
- 27) 한혜경(1985). 한국도시 주부의 정신적 갈등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8)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9) Booth, A.(1977).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 A replication and refu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 30) Clark, R.A., Nye, F.I., V.Gecas(1978). Husband's work involvement and marital role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 31) Feuerstein, M., Labbe, E.E. & Kuczmarczyk, A.R. (1986). *Health Psychology : A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 Plenum.
- 32) Good, W.J.(1960). A theory of role stra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 33) Gore, S. & Thomas, W. Mangione(1983). Social roles and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
- 34) Greenhaus, J.H. & Beutell, N.J.(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 35) Keith, P.M. & Schafer, R.P.(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 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29.
- 36) Kessler, R.C. & McRae, J.A. Jr.(1982). The effect of wif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a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